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재가 복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춘석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Targeted at home welfare seniors in Gyeonggi-do-

Chun-Seok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장기 요양 서비스 수혜자인 어르신이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어떤 요인에 의하여 만족도가 나타나게 되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의왕시, 시흥시에 상주하는 방문 요양 가정,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166명을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면담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한 설문조사 연구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1.0을 이용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에서는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 동거가족, 생활 수준, 본인부담금, 거주지, 한 달 용돈, 교육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체적 요인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 요인에서는 인지력이 있고 무력감이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의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력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urvey-based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atisfaction of elderly recipients of long-term care services. One hundred and sixty-six seniors aged ≥ 65 years at nursing homes and daycare centers in Gunpo-si, Gwacheon-si, Bucheon-si, Anyang-si, Uiwang-si, and Siheung-si were randomly interviewed from March 14 to April 5, 2021.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t-test and one-way ANOVA in SPSS/WIN 21.0.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sociodemographic, physical, mental, and social factors, but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atisfaction and conflict in the relationship with caregivers. Regard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age, cohabiting with family, standard of living, out-of-pocket costs, place of residence, monthly allowance, and education. In terms of physical factors, daily activities performed alone were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satisfaction, and mental factors were highly correlated in those with cognitive ability and no sense of helplessness. In addition, participation in an elderly project had a positive influence. However, there appeared to be no correlation with the caregiver relationship. The study shows that cognitive ability and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regularly positively influence life satisfaction.

Keywords : long-termcare Service, Elderly, Lifestyle, Caregiver, Satisfaction, Correlation

*Corresponding Author : Chun-Seok Choi(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University)
email: ccs90688@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0, 2023

Revised January 25, 2024

Accepted March 8,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요인은 경제활동 인구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년 부양 비율이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이상 증가로 인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 3명이 어르신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 된다[1]. 또한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회를 다변화시켰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의 부담을 안게 된다. 그로 인해 기혼여성들은 남녀 임금 격차, 경력 단절 그리고 과도한 업무 등으로 저출산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

기존의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를 지향하여 부양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로 서구 문화가 유입되고 핵가족화로 가족 구성원이 변화하면서 가정의 해체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독거 어르신이 늘어나는 가정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어르신 부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촉발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대안으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수발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장기 요양시설을 확장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공공부문이 시설보호가 2.0%, 재가 보호 0.6%, 민간 비영리 부문 시설이 27.1%, 재가 15.3%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 영리시설은 70.9%, 재가는 84.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시설이 89.0%, 재가 93.0%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영국은 국공립이 19.2%, 재가 32.4%, 독일은 국공립 8.2%, 재가 18.0%를 차지하고 있다[2].

이와 같은 실정에 정부도 복지예산을 늘리고는 있으나 아직도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수혜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율이 22%를 차지하고 있다[3].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고령화로 인해 제기되는 노후의 삶의 만족을 위해 현대인의 로망인 일차적인 경제력과 건강, 이차적인 외로움으로 친구, 친척, 이웃들과 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첫째, 수혜자의 일반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수혜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삶의 만족도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특정한 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고령화로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 해도 삶의 만족을 갈구하게 된다. 만족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 건강, 교육, 소득 등과 같이 경제성장률에 비례하는 실업률과 평균수명이 있고, 주관적 지표로는 안정감, 친밀감, 행복감 등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은 차이가 있다[4].

즉 삶은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의 삶의 만족도는 성, 연령, 교육 수준, 종교활동 등에서 찾고 있었으나, 현재의 삶의 만족도는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자녀와의 결속도,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비중을 두었다면, 미래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와의 결속도, 교육 수준, 연령 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20)[6]에 의하면 만족도는 우선 건강과 경제력,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라고 하였으며, 통계청(2021)[7] 조사에서는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유무에서 만족도가 측정되고 있었다.

2.1 삶의 만족도 관련 이론

삶의 만족도란 세월의 변함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어가는 것에 순응하고 생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7]. 즉 노화로 육체적, 정신적 변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순응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만족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의 삶의 지표라고 말하고 있다[8].

2.1.1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

은퇴이론은 신체적 활동이 서서히 쇠퇴하게 되고 사회 활동이 소극적인 삶의 형태로 바뀌면서 사회적 이탈 현

상으로 인해 역할이 축소됨에도 만족감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계속하는 어르신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Chatfield[9]는 노년기를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은퇴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10]

활동이론(Activity Theory) Havighurst & Albrecht는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역할과 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11]. 정년퇴직으로 사회경제적인 역할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사회적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만족감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즉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12].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보상과 대가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강요된 행동처럼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상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도 대가나 보상을 외면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한다[13].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이익과 보상이라는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관계인 상호작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14]. 그러나 현대인들의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야식이나 편의점 간편식, 걷기보다는 elevator나 escalator를 사용함으로써 신체활동이 줄어들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15].

2.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1 신체적 요인

노화현상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식사 습관, 불규칙한 일상생활, 운동량, 과거 질병의 병력, 현재 질병의 유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어르신보다 삶의 만족도가 조금 높거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건강이 반드시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16]. 그러나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17].

2.2.2 정신적 요인

Campbell et. al(1976)[18]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이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주로 수용적이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많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아서[19] 우울증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건강 인지도가 높고, 신체활동이 많으면 체지방이 낮아 우울감이 낮았고[20], 인지력이 높고 영양상태가 좋을수록[21]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통증 대처 능력이 높고, 만성통증의 경험이 적을수록[22] 우울증 정도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은퇴 후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만 머물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도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23].

2.2.3 사회적 요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인 Havighurst. et al(1968) [24]에 따르면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는 획일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특성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노화 자체보다는 사회적인 역할상실에 의해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처방안으로 노년기의 역할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역할로 대체하기 위해 의무적인 사회적 형태가 아닌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생활 변화는 사회 중심에서 가정이나 이웃, 사회단체, 종교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고, 직장동료로부터 배우자, 자녀, 친척 또는 친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2.2.4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비해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아 마찰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관계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항상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배려하고자 하는 동기는 존재하지만 강한 보상심리가 있어 상호 간에 교환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주우진 외 2012)[26].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어르신이 어떤 요인에 의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통제변수로 건강과 경제적 수준을 전제로 하였고, 독립변수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로 세분화하였고,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3.2 연구가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I.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1.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신체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정신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II.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1. 갈등적 요인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3.3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군포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의왕시, 시흥시 등 지역에 소재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166명을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기존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작성하였다.

3.4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10개 문항, 신체적 요인 5문항, 정신적 요인 7개 문항, 사회적 요인

5개 문항,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 5개 문항, 삶의 만족도 5개 문항으로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조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사전 예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적재값은 모두 0.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요인은 고유값이 3.725, 설명 분산은 74.948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가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918로 내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에 대한 사후검정은 Scheffe를 이용하였다.
4.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6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 변수들 중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요인에 대해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설문 문항들의 구성항목 간에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요인 5개 항목들에 대하여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3.725, 설명 분산은 74.948로 나타나 요인이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의 74%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918로 내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요인 5개 항목은, '지금까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온 것에 만족한다.', '어르신은 친구, 이웃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편이다.',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의 수발에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적이 많았다.' 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해 요인 추출 개수를 '1'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KMO 측도는 0.58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39.739($p < .001$)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0.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문항 중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의 수발에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적이 많았다' 문항은 제거되었으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요인은 고유값이 1.538, 설명 분산은 39.583으로 나타나 요인이 삶의 만족도의 39%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478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4.1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현재 동거 가족, 생활 수준, 본인부담금 지불자, 거주지, 한 달 용돈, 교육에 따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체적 요인 중 신체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혼자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따른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적 요인은 무력감, 친화력, 스트레스, 우울 증상, 소외감, 절망감에 따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은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 친척 또는 친구 모임 참석, 가사노동 및 손자녀 돌봄 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석, 자녀와의 하루 대화 시간에 따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의 경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변수는 종속변수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회귀분석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서 무의미하다.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명목형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은 모두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4.1.1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1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2.525(p < .01)$ 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 값은 .128로 나타나 이 회귀식은 12.8%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VIF 값이 1.264~1.937로 모두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들 중 연세($b=-.024, p > .05$), 가족관계의 더미변수인 가족관계 독신($b=-.096, p > .05$), 가족관계 기혼 아들($b=.008, p > .05$), 가족관계 기혼 딸($b=-.209, p > .05$), 가족관계 미혼 자녀($b=.039, p > .05$), 경제력($b=-.006, p > .05$), 입소비 지불자의 더미변수인 본인부담금 배우자($b=.148, p > .05$), 본인부담금 기혼 자녀($b=-.011, p > .05$), 본인부담금 미혼 자녀($b=-.117, p > .05$), 본인부담금 기타($b=-.298, p > .05$), 거주지의 더미변수인 거주지 전세($b=-.195, p < .05$), 거주지 월세($b=.009, p > .05$), 거주지 기타($b=-.225, p > .05$), 용돈($b=.052, p > .05$), 교육($b=.058, p > .05$)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신체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2는 신체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9.197(p < .001)$ 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 값은 .240로 나타나 이 회귀식은 24.0%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VIF 값이 1.111~2.324로 모두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 변수들 중 신체적 건강 상태($b=.187, p < .001$), 정신적 건강 상태($b=.173, p < .01$)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단적 일상생활의 더미변수인 수단적 일상생활 전화 걸기($b=-.236, p < .05$)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의 더미변수인

Table 1.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t	Significant rat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beta			tolerance	VIF
(a constant)	2.278	.273		8.343	.000		
age	-.024	.036	-.062	-.673	.502	.651	1.537
Family Relationship_Single	-.096	.101	-.086	-.945	.346	.671	1.491
Family Relationship_Married Son	.008	.110	.006	.068	.946	.746	1.340
Family Relationship_Married Daughter	-.209	.158	-.111	-1.324	.188	.791	1.264
Family Relationship_Unmarried Children	.039	.152	.026	.259	.796	.551	1.816
economic power	-.006	.068	-.009	-.089	.929	.516	1.937
Out-of pocket expenses_spouse	.148	.144	.088	1.029	.305	.759	1.318
Out-of-pocket_Married children	-.011	.093	-.011	-.118	.906	.603	1.659
Out-of-pocket expenses_unmarried children	-.117	.190	-.060	-.615	.540	.595	1.681
Self-payment_Other	-.298	.164	-.171	-1.813	.072	.626	1.598
Residence_Jeonse	-.195	.097	-.185	-2.005	.047	.656	1.524
Residence_Monthly rent	.009	.135	.007	.067	.947	.581	1.720
Residence_Other	-.225	.207	-.097	-1.090	.278	.704	1.421
Pin money	.052	.039	.124	1.335	.184	.652	1.533
education	.058	.045	.124	1.282	.202	.603	1.660

adj-R²=.128 , F=2.525 , p=.002

Table 2. Effect of physic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t rat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a constant)	1.715	.195		8.811	<.001		
physical health condition	.187	.056	.267	3.317	.001	.900	1.111
mental health condition	.173	.056	.250	3.073	.003	.881	1.135
instrumental daily life -/Making phone calls	-.236	.117	-.236	-2.023	.045	.430	2.324
Instrumental daily life _Riding the bus or subway	.183	.220	.071	.834	.406	.805	1.242
Instrumental daily life _light housework	-.062	.129	-.054	-.478	.634	.456	2.194

adj-R²=.240 , F=9.197, p=<.001

수단적 일상생활 버스, 전철타기($b=.183, p>.05$), 수단적 일상생활 가벼운 집안일($b=-.062, p>.05$)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 상태와 정신적 건강 상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수단적 일상생활인 전화 걸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건강 상태($\beta=.267$)와 정신적 건강 상태($\beta=.250$), 수단적 일상생활 전화 걸기($\beta=-.236$) 중 신체적 건강 상태가 표준화 계수값(β)이 가장 높기 때

문에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상태, 수단적 일상생활 전화 걸기 순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1.3 정신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은 무력감, 친화력, 스트레스, 우울 증상, 소외감, 절망감 변수는 역채점을 한 후 투입하였으며, 정신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F=7.798(p<.001)$ 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한

Table 3. Effect of ment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t rat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a constant)	1.735	.240		7.229	<.001		
helplessness	-.108	.060	-.160	-1.805	.074	.777	1.287
affinity	.093	.054	.150	1.716	.089	.800	1.251
stress	-.151	.071	-.235	-2.121	.036	.496	2.016
depressive symptoms	-.048	.075	-.075	-.647	.519	.453	2.207
feeling of alienation	-.068	.045	-.140	-1.515	.133	.718	1.393
despair	.004	.048	.009	.082	.935	.482	2.074
adj-R ² =.249 , F=7.798, p<.001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² 값은 .249로 나타나 이 회귀식은 24.9%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VIF 값이 1.251~2.207로 모두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요인 변수들 중 스트레스(b=-.151, p<.05)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력감(b=-.108, p>.05), 친화력(b=.093, p>.05), 우울 증상(b=-.048, p>.05), 소외감(b=-.068, p>.05), 절망감(b=.004, p>.05)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1.4 사회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는 독립변수로 투입된 사회적 요인의 모든 변수는 역채점을 한 후 투입하였으며, 사회적 요인이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5.287(p<.001)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² 값은 .117로 나타나 이 회귀식은 11.7%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VIF 값이 1.112~1.967로 모두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변수들 중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b=.073, p>.05), 친척 또는 친구 모임 참석(b=.100, p>.05), 가사노동 및 손자녀 돌봄 활동 참여(b=.067, p>.05),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석(b=.002, p>.05), 자녀와의 하루 대화시간(b=.047, p>.05)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1.5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

Table 4. Impact of soci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t rat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beta			tolerance	VIF
(a constant)	1.746	.125		13.971	.000		
Hop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senior citizen employment project	.073	.054	.133	1.360	.176	.577	1.733
Attending gatherings of relatives or friends	.100	.060	.173	1.663	.098	.508	1.967
Participation in housework and grandchild care activities	.067	.059	.116	1.131	.260	.524	1.909
Community volunteerwork attend	.002	.062	.003	.028	.978	.579	1.728
Aday with your child conversation time	.047	.048	.077	.985	.326	.900	1.112
adj-R ² =.117 , F=5.287, p<.001							

적 요인을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3.107(p<.001)$ 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 값은 .397로 나타나 이 회귀식은 39.7%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VIF 값이 1.476~3.420으로 모두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 본인부담금 지불자의 터미변수인 본인 부담금 기타($b=-.585, p<.01$)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건강 상태($b=.165, p<.05$), 친척 또는 친구 모임 참석($b=.181, p<.05$)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가설 검증

<가설 4.2.1-1> 수혜자인 어르신 중 신체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R^2 는 .240, $F=9.197, p<.001$ 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상태의 경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 '아주 나쁘다',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정신적 건강 상태의 경우 '아직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많이 있다', '가끔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은 '버스, 전철 타기'라고 응답한 경우 '전화 걸기'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설 4.2.1-2> 수혜자인 어르신 중 정신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R^2 값은 .249, $F=7.798, p<.001$ 로 나타났다. 정신적 요인 변수들 중 스트레스($b=-.151, p<.05$)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력감($b=-.108, p>.05$), 친화력($b=.093, p>.05$), 우울증상($b=-.048, p>.05$), 소외감($b=-.068, p>.05$), 절망감($b=.004, p>.05$)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2.1-3> 수혜자인 어르신 중 사회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수정된 R^2 값은 .117로 나타났고, $F=5.287, p<.001$ 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요인 변수들 중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b=.073, p>.05$), 친척 또는 친구 모임 참석($b=.100, p>.05$), 가사노동 및 손자녀 돌봄 활동 참여($b=.067, p>.05$),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석($b=.002, p>.05$), 자녀와의 하루 대화 시간($b=.047, p>.05$)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2.1-4> 수혜자인 어르신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R^2 값은 .128로 나타났고, $F=2.525, p<.01$ 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 변수들 중 거주지가 전세인 경우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5, p<.05$). 연세($b=-.024, p>.05$), 가족관계의 터미변수인 가족관계 독신($b=-.096, p>.05$), 가족관계 기혼 아들($b=.008, p>.05$), 가족관계 기혼 딸($b=-.209, p>.05$), 가족관계 미혼 자녀($b=.039, p>.05$), 경제력($b=-.006, p>.05$), 입소비 지불자의 터미변수인 본인부담금 배우자($b=.148, p>.05$), 본인부담금 기혼 자녀($b=-.011, p>.05$), 본인부담금 미혼 자녀($b=-.117, p>.05$), 본인부담금 기타($b=-.298, p>.05$), 거주지의 터미변수인 거주지 월세($b=.009, p>.05$), 거주지 기타($b=-.225, p>.05$), 용돈($b=.052, p>.05$), 교육($b=.058, p>.05$)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2.2-1> 수혜자인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적 요인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위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는 평균 미만과 평균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 점수가 평균 미만인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2.40, 표준 편차 .47로 나타났고, 평

군 이상인 집단은 평균 2.28, 표준 편차 .48로 나타났다. 평균 이상 집단보다 평균 미만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12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522, p>.05$).

5. 논의 및 결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다양한 요인 중에 인구 사회학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서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서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지역 일원인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군포시, 시흥시 등에 상주하는 만 65세 이상 인지력이 있는 어르신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면접 및 방문 조사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200부 중 하자가 없는 166명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현재 동거 가족, 생활 수준, 본인 부담금 지불자, 한 달 용돈, 교육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요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혼자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따라 만족도가 나타났다. 정신적 요인은 무력감, 친화력, 스트레스, 우울 증상, 소외감. 절망감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나타났고, 사회적 요인은 일자리 사업 참여, 친척 또는 친구 모임 참석, 가사노동 및 손자녀 돌봄 참여, 봉사활동 참석, 자녀와의 대화 시간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관계에서는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재가 서비스 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연구대상자와 조사지역 선정에 있어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지역을 경기도 지역 일원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65세 이상 재가 어르신 수혜자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전국의 재가 어르신 복지 수혜자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표집 대상자 설문조사 과정에서 수혜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설문지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요양보호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간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 요양대상자

의 경우 수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를 하면서 한계점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 수준이 보통 이상인 사람은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배우자나 자녀들 역시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어르신을 케어할 수 없어 재가 복지 대상자가 많았음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경제력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들은 무관심과 사회활동의 단절로 소외되고 있다.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주기적인 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생하고 후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역할상실을 경험한 어르신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 활동과 삶의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재가 어르신들은 활동 능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어 이로 인해 상실감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의 제약이 많은 재가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이와 병행하여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는 노인정, 경로당을 마을공동체로 형성하여, 지역사회 어르신과 재가 어르신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한다면 사회와 단절된 한계점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SBS Biz, 18 years later, 'A country for the elderly' 3 young people support 2 elderly people. 2022. 4. 14.
- [2] J. E. Seok, National Assembly Debate Date Collection. 2017.

- [3] M. j. Lee, G. O. Le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care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Korean Gerontology* Vol. 25, p.40, 2005.
- [4] G. I. Won,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Geriatric Education*, 6(2), pp.7-51, 2020.
- [5] C. W. Lee, H. Jang, "Time-level research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Gerontology* Vol. 16, No. 2, pp.137-140, 1996.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 on Senior Citizens, 2020.
- [7] Statistics Korea, 2021 Social Survey, 2021.
- [8] C. H. Lim, "Study on the living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hd,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p.6, 2005.
- [9] Chatfield, W. F.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5): pp.591-599, 1997.
- [10] S. H. Oh,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Community Welfare*, 23, 209-231.
- [11] Bruce W et al.,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 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Vol. 27, 1953.
- [12] H. G. Lee, G. Y. Kim, J. S. Shim.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on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Korean Hotel, Restaurant and Tourism Management Association*, 29 (4), pp.165-175, 2020.
- [13] C. H. Lim, "Study on the living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hd,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p.14, 2005.
- [14] Y. R. Jeong,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leisur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ypes and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ety, Culture and Art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p.27, 2012.
- [15] S. W. Chae, "The essence of diet", Secret, 2014.
- [16] VanderZee, K. I. B., B. P. Buunl, J. H. DePuieter, R. Tempelaar, E. Van Sonderen & R. Sanderman. "Social Comparison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ancer Patients.", *Basic and Social Psychology*, 18, pp.453-468, 1998.
- [17] M. J. Moon,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elderly living at home.", *Korean Journal of Nursing*, 40(4), pp.542-550. 2010.
- [18] Campbell, A. "Subjective measurement of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 pp.117-124, 1976.
- [19] Y. S. Byun, J. I. Lee,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among elderly people in nursing do, depressed performance of daily life relationship homes. nine.", *Journal of Basic Nursing*, Vol. 9 No. 1, pp.45-55, 2002.
- [20] M. A. Choi, J. I. Kim, Y. R. Chae, M. Y. Jeon, J. H. Yoo,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activity of the elderly. Relationships between related factors.", *Journal of Geriatric Nursing*, Vol 6, No. 1, pp.99-106, 2004.
- [21] Y. M. Jeong, J. H. Kim, "Comparison of cognitive function, nutritional statu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cohabitation type.", *Korean Journal of Nursing*, Vol. 34, No. 3, pp.495-503, 2001
- [22] H. K. Jang, J. N. Son, B. K. Cha, "Chronic pain, pain coping, fatigu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A study on wool relationships.", *Journal* 2006.
- [23] H. S. Yoon, S. Y. Heo, "Social studies on the impact of the elderly health status i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Korean Gerontology*, Vol. 27, No. 3, pp.649-666, 2007.
- [24] Havighurst, R. J.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8(2), pp. 67-71, 1968.
- [25] Larson, R. "Thirty Years of Research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pp.109-129, 1978.
- [26] W. J. Joo, M. j. Noh, "The impact of consumers' value-seeking drivers on the perception of trustworthiness of blog review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bond strength", *Korea Marketing Association* Vol. 13, No. 4, pp.159-189, 2012.

최 춘 석(Chun-Seok Choi)

[정회원]



- 2018년 8월 : 고려대학교 인문정 보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2012년 6월 ~ 현재 : 국민안전정 보원(주) 대표

<관심분야>

노인복지, 탈북민 복지